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수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3차 시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수해 안전망 종합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11.12월 시민대토론회 개최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시민·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공감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제3차 시민대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2. 3. 5(수) 14:00~18:00
- 장 소 : 페럼홀 (페럼타워, 을지로1가)
- 참 석 : 시민, 시의회, 관련 학회, 공무원 등 350명
※ 시민방청객 145명, 시민의견 62건, 생중계 (교통방송 및 인터넷방송)
- 발 표 저지대 상승 침수지역 해소대책 (고태규 하천관리과장)
- 토론자 : 좌장 1, 토론자 8명(전문가 5, 시민단체 1, 시민 1, 시의원 1)
 - ▶ 전문가(5):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규호 (건설기술연구원) 배덕효 (세종대 교수) 김영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시민단체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 시의회 : 서영진 (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
 - ▶ 관계시민 : KBS 김상협기자
 - ※ 좌장 : 이종태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 그동안 토론회 추진경과

- 제1차 시민대토론회 개최 : ‘11. 9. 1(목)14: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세션 1 : 최근의 서울시 홍수현황 분석 및 정

책 제언(배덕효, 세종대 교수)

- 세션 2 : 우면산 사태를 통해서 본 급경사지 재해와 대응방안(박덕근, 국립방재연구소)
 - 제2차 시민대토론회 개최 : ‘11.12. 7(수) 14:00,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 주제발표
 - 기후변화 대응 수해안전망 개선대책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 강서·양천지역 수해방지 대책 (명남재 (주) 건화 전무)
- 지명토론 및 열린토론 (방청석, 인터넷 TV 생방송 및 SNS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토론결과 : 광화문 빗물배수터널,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재검토 요청 등

■ 토론회 결과

- 최근 홍수량이 기존 수방시설의 한계를 넘어 침수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회안전 측면에서도 대심도 지하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포함한 치수대책이 필요 (김규호, 배덕효, 김영란, 서영진)
- 대심도 터널계획이 없었으므로 공정성있는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고, 급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임 (박창근, 염형철, 박재현)
- 시민들은 수방대책에 대해 관심이 높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

■ 토론회 의견

- 2010년 말까지 대심도 터널 계획이 없었다. 수해대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설치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꼭 필요한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한 검토 필요
- 최근 몇 년간의 홍수 피해는 대부분 홍수 설계량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
급한 건 시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과 수해를 대비하는 주민들의 인식 증진이 먼저임
- 2010년, 2011년 3시간 이상 지속되는 호우 증가. 큰 틀에서 대심도 빗물터널이 필요
- 최근 홍수가 대형화되면서 일시 홍수량이 기존 수방시설의 한계를 넘어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대심도 빗물 터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사회가 발전하면서 치수대책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사회 안전 측면에서 대심도 지하저류배수시설 건설을 포함한 치수대책이 진행되어야 함.
- 기존 우수 관망 관리와 일부 병목 구간의 확장 같은 기술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투수성 포장 우수 저류조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배수구역계획을 세워야 함
- 수해대책은 알수록 굉장히 복잡하다. 의견도 다양하다. 방송인으로서 고민이 많다. 사회적합의는 쉽지 않지만 대책방안이 빨리 마련 되어야 할 것임.
- 토건사업과 비교는 무리,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확충이 중요하며, 기습적인 폭우 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시점임.

■ 시민참여 현황

(단위 : 건)

총 계	의 건 제 출			현 장	
	소 계	SNS오픈채널	트위터 등	의견제출	발 표
62	39	35	4	14	9

■ 방청객 의견

- 제발 저류조 정책으로 나가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이..)
- 대심도 터널(저류조)은 근본적으로 필요, 시민참여 요청 (윤..)
- 투수층 확대, 소형저류조, 우수관 정비, 대심도 터널 등 이 모든 것은 수해예방을 위한 치료기법이라 할 수 있음.
현재 병 상태 (강우특성)가 위중하여 당장 큰 수술 (대심도)이 필요한 실정임. 투수층 확대와 같은 기법은 식이요법 정도라 할수 있음. (이..)
- 강남역 우선 추진(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에 신설), 신 분당선이 먼저 건설되면 배수터널 시공이 어려워짐. 동시 시공 필요 (김.., 조..)
- 지하 침투 개념의 중, 소형 저류조 개념으로 간다면 지하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될 듯 싶다 (익명)
- 주민들은 올 여름 넘기는 것이 큰 걱정. 빗물 저류조를 우선 검토했으나, 실제로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것이 대심도 터널임. 시급히 토론을 종결, 조속한 조치 촉구 (장..)

•대심도는 오염이 누적되고 펌핑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2013년 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와 대심도의 누적된 오염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익명)

■ SNS 의견

•광화문 일대가 2년 연속 침수되어 참담, 토론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서 하루빨리 광화문일대가, 아니 서울시 전체가 침수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

(아우성)

•다른 시설 대비, 효과성이나 비용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지, 궁금

(서울시민)

•정치적 이슈인 포퓰리즘적 복지 예산 확대만 신경 쓸게 아니라 진정 필요한 수해 안전대책 및 시설 확충에 예산이 쓰였으면 합니다.

(서울시민케인)

•결론 없이 계속되는 토론회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만 오고 가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도 없더군요.

(blueoo)

•'10, '11년과 같은 침수피해 1~2번만 더 나면 그 돈 뽑고도 남는다.

(외국)

•일본 시설들이 우리처럼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을 까하는 의문..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안되고 책임질 수 있길

(옹오)

■ 향후계획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 · 작성 : 도시안전과

•대심도 반대그룹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대안 제시 : 하천관리과

제3차 시민대토론회 개최결과 사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수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3차 시민대토론회 개최



모바일 방재운영시스템 및 농어촌공사 경보방송시설 연계 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재난경보방송시설, 문자전송시스템, 기상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접근 재난대응 효과 제고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보방송시설을 안성시 재난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저수지 수문개방 시 뿐만 아니라 폭설, 폭우, 재난홍보 등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차원의 경보방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스템연계

• 도입배경

-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재난방재 예경보시스템 접속 필요

- 본청 상황실과 같이 읍면동 또한 경보방송 및 문자전송시스템 접속 필요
- 방재담당 공무원들의 경보발령 신속성 필요
- 농촌공사 방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 필요성 대두

• 구성방법

- 기존 재난문자 및 경보방송 시스템 스마트폰과 연동
- GIS지도상 경보방송 위치표시 및 직접방송기능 구현
- 국가기상정보 시스템 접속연계 및 각종 기상데이터 제공
- 농촌공사 방송시설의 예경보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 연계



시스템 메인화면

문자발송메뉴

GIS활용한 경보방송

기상정보표출

■ 추진실적

- 2011. 06 . 22 : 6월 아이디어 창출회의 자료 제출
- 2011. 06 . 28 : 6월 아이디어 창출회의 우수 입상
- 2011. 07 . 08 : 사업비 확보(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15,000천원)
- 2011. 08 . 24 : 시스템 사업발주
- 2011. 09 . 22 : 시스템 사업완료
- 2011. 10 . 06 : 농어촌공사 경보시설 예경보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 연동 협의
- 2011. 10 . 11 : 모바일 방재운영시스템 읍·면·동 교육실시
- 2011. 10 . 17 : 농촌공사 경보방송 연계 완료
- 2011. 10 . 26 : 2011년도 자연재난관리 추진실태 평가 우수사례 선정(경도도 주관)

- 2011. 11 . 15 : 2011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 점검 수범사례 선정(소방방재청 주관)

■ 사업성과

- 재난책임자의 신속한 비상근무 발령 효과
- 현장예찰시 위험사항 인지즉시 문자 및 경보방송 실시 가능
- 기상정보의 손쉬운 접근으로 재난대처능력 향상
- 읍면동 재난대책담당자 재난관리 역량 향상
- 농촌공사 경보방송시설 12개소 연계에 따른 예산절과 효과
(시설시 개소 당 약 13,000천원 소요, 약 156,000천원 예산 절감)